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21:1-11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당시 개선 장군이나 왕을 영접할 때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속 예수님의 생애는 거의 대부분이 공생애 3년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직전의 일주일간의 기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위대한 종교가 또는 철학자’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회개혁가이며 교육자, 정치가’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누구이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 21:10)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의 위대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한 신앙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담긴 신앙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요 5:18)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격분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7)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오신 분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은지 나흘이나 되어 부패하여 냄새까지 났습니다. 무덤 속까지 들어갔던 그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동여 맨 채, 살아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맛본 이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 없는 사실 한가지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워싱턴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나귀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귀를 내어 드립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를 조차 나오지 않는 이 사람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이런 가축은 그 사람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귀를 내어 놓으면, 돌려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을 터인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주님께 나귀를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목적이 아닌, 바로 주님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귀 주인이 이 때 나귀를 내어 놓지 않았다면, 그 나귀는 그저 짐이나 실어 나르는 일을 하다가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귀 주인의 순종으로 인해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가 원하는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용한 인생'에 지나지 않게 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로마서 7: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종려주일이라 부르는지 그 의미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준 나귀 주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나귀 주인의 헌신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봅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